충북 증평중학교 - 풍경이 있는 아름다운 학교

전국에서 군세가 제일 작은 증평군 증평읍은 구시가지와 요즘 들어 한창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신시가지로 나누어진다. 증평중학교는 그 중 구시가지에 가깝다. 2차선도로를따라올라가다보면복잡한 상가 지역을 벗어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양 옆으로 이웃해서 증평초등학교와 증평공업고등학교가나란히 배치되어 교육타운을형성하고있다.

1946년 10월에6학급으로개교하여현재 52년의역사가고스란히배어있다. 18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학교 규모는 군소재지중학교에걸맞다. 교사(校舍)는일자형으로 3층 건물이 앞뒤로 나란히 두개 동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후관 옆으로 다목적 교실이 자리하고 있다. 본관 우측으로 자연사과학관이, 왼쪽 앞으로는 진입로에단층건물인청운관이있다.

건물하나하나마다애정과역사성이묻어난다. 필자의 모교이기도 하며 괴산교육청에 두 차례나 근무하면서 학창 시절 공부했던 교사(校舍)를 직접 철거토록 하고그자리에본관을비롯하여후관, 자연사과학관, 청운관(靑雲館)을설계하여 증축하였으니세월이지난지금도아이러니하고감회또한남다르게다가온다.

‘ 전국 명소 ’자연사과학관

증평중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과학관이 명소로 자리매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10년동안2만6,000여명이관람한것으로나타난자연사과학관은화석, 암석, 광물, 해양 동 · 식물, 공룡 발자국 탁본등많은유물이소장돼있다. 이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염명헌 교사가 생물학 전공을살려 대학시절부터 30여년 동안 전국을 돌며 채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1998년 개관한 이 과학관은 736종 4,000여점의다양한유물을전시하고있다.

염교사의이러한노력끝에교육과학기술부는 8억 2,700만원을 지원했다. 괴산교육청에서2002년4월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독립 건물을신축할당시김용환 교수(충청대)와 함께 계획 · 설계하여 전국유일의단위학교자연사과학관으로 탄생시킨 것이 보람으로 남는다. 한 교사의 노력이 많은 학생에게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과 학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은 감동으로다가온다.

자연사과학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증평중 자연사과학관은충북뿐만아니라전국모든학교에체험 학습장으로 개방, 해마다 수천 명이 방문해기초과학교육발전의산실이되고있다.

일자형 교실 평면 구성

일자형 교실 평면 구성은 닫힘보다는 열림의, 채움보다는 비움의 미학으로 볼 수 있다. 이동수업이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배려한 공간과 동선에서다소불편하지만일조권이양호하며 환기와 통풍이 좋아 밝은 교실 환경이다. 또한, 본관과 후관을 이어주는 통로를 통

해 원활한 수직 및 수평 동선을 유도하고 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하여 늘 음악이흐르는아름다운화장실로조성하여학생들이 꺼리는 공간을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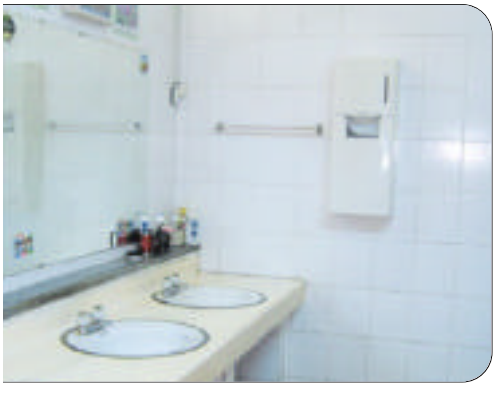
자연 친화적 환경

52년의 학교 역사를 자랑하듯이 교사(校舍)의숨결이녹아있는듯하다. 더욱이 2003년에는' 제4회아름다운학교시설부문우수상 '을수상하였다. 그것은바로 자연을이용한친환경조성으로교육가족의 땀방울이배어있는결정체이다.

교내에 씨름장, 테니스장, 축구장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넓은 운동장 주변을 따라아름드리플라타너스나무가있어운동회 날하루 종일 땡볕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천막을쳐야하는번거로움이사라졌다. 나무 한 그루가 한 반 30 40명 정도의학급인원이쉴 수있는 그늘을 충분히 제공하기때문이다. 도로변쪽으로는20여년 정도 된 은행나무가 꼿꼿이 운동장을 지켜주고있다.

증평중학교의가장큰매력은교문을들어서면 나타나는 50m 정도의 진입로다. 양편으로 반송을 비롯하여 철쭉, 무궁화, 배롱나무등다양한나무가도열하여반기는듯한모양새가퍽인상적이다.

음악이흐르는아름다운화장실.



본관 앞으로도 여유로운 정원이 조성되어 봄이면 목련꽃이 장관을 이루고 학교 역사에 걸맞는 아름드리 잣나무와 느티나무가 있어 잣이 익어갈 무렵엔 다람쥐의 모습도곧잘눈에띈다. 또한, 현관을중심으로앞뒤에화단을조성하여사철다양한 꽃을볼수있다. 후관뒤편경사지에도담장으로경계선을만들지않고잔디를심어 토사 유출을 막는 재해 방지 효과는 물론 나무를 심어 녹지 공간 조성 효과도 거두고있다.

교사(校舍)를 중심으로 나무와 녹지 공간이 에워싸고 있다. 또한, 등나무로조성된 쉼터뿐만 아니라 교정 곳곳에 휴식을 취할수있는의자를설치해방과후나점심 시간, 여가 시간에 학생들이자연과 함께하며 정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쾌적한환경을제공한다. 요즘' 웰빙 '이란말이 먹거리부터 시작하여 여가 선용까지 최적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증평중학교야말로 웰빙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할수있다.

향후 학교 발전 청사진

기존교실과유휴공간은실내에서의공간 활용과 효율성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먼저 노후된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그에 따른 보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남녀 합반인 상황에서 학생 탈의실 등학생편의시설과교과연구실, 회의실, 교직원 휴식 공간과 체력 단련실 등 교직원의 연구와 복지를 위한 공간 배려가 중요한관건이다.

그 중 하나가 처음 도서실로 계획되어 마련된 청운관이다. 이 건물은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서실을 후관 3층으로 이관한후제대로활용이되지않고있다. 본관과거리가있어이동에불편하다는문제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

학교내부.

자연사과학관내전시실.

는 영어체험학습실로 계획하여 투자하면 훌륭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본관의 교실과 급식소 및 특별실의 후관 건물은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이동통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선의 효율성과 이동이 편리하게 될것이다.

증평중학교는 이규필 교장 선생님의 능력과품성을겸비한세계인을육성한다는 교육 철학과 면학, 효심, 정직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100년, 그 이상 전통을 이어갈 중부권의 거점 명문 학교로 부상할 것이다. 이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며 머물다 떠나간 학생, 동문들은 물론 교직원 모두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려지는' 풍경이 있는 아름다운학교 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정관영
충북학생교육문화원기술서기관
(공학박사)